



제 406 호 2015년 10월 21일 발행

발행인 안산시장 제종길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 031-481-2042 FAX : 031-481-3224 E-mail : bravo@iansan.net

브라보 안산

Ansan City Newspaper
Bravo Ansan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b blog.naver.com/cityansan](http://blog.naver.com/cityansan)

[t twitter.com/ansancityhall](https://twitter.com/ansancityhall)

[f facebook.com/ansancity3](https://facebook.com/ansancity3)

story.kakao.com/ch/ansancity

02면 안산소식

안산시립예술단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04면 생태·관광

‘젊음과 건강을 지키는 열매’
선부동 블루베리농장

06면 문화·예술

‘제30회 안산시민의 날’ 체육대회,
안산시민 한자리에 모여 행복한 추억 만들다

13면 종합

청년들과 함께 나누는 삶의 고민,
‘청년아카데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안산시립예술단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

박애리

출연진
안산시립국악단, 안산시립합창단,
김동규, 박애리, 안치환, 리듬몬스터

2015.10.30(금) 오후 7시 30분
안산문화광장(썬큰광장)

안치환

김동규

문의 안산시 문화예술과 031)481-2064 안산시립예술단 031)481-4097,4098 주최 안산시 주관 안산시립예술단

안산시립예술단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깊어가는 가을 저녁,
안산시립합창단·국악단과
김동규, 안치환, 박애리가 들려주는
안산시민을 위한 특별한 공연

시 간	내 용	
19:30~	오프닝	• 천둥소리 ※ 국악단, 합창단
19:40~	국악단	• Sing, Sing, Sing • 공항의 이별, 연안부두, 앵콜(봄날은 간다) ※ 박애리 협연 • 비보이와 함께 '방향' ※ 비보이 협연
20:10~	합창단	• 나의 노래 • 우 리 • 팔 소 성 • 세계민요메들리
20:30~	가수 안치환	• 내가만일 • 인생은 나에게 술한잔 사주지 않았다 •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 바람의 영혼 • 위하여 - 앵콜
20:50~	성악가 김동규	• Core'nt grato • My way • Fly me to the moon •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 국악단, 합창단, 김동규

안산시는 오는 10월 30일(금) 안산문화광장에서 안산시립예술단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연다. 이번 공연은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시민과 함께하고픈 마음을 담아 안산시민의 문화향유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흥하고자 안산시립예술단에서 야심차게 마련한 음악회이다. 바쁜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10월의 가을밤이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도록 바리톤 김동규, 가수 안치환, 국악인 박애리 등이 안산시립예술단과 함께 환상

적인 무대를 펼칠 계획이다. 첫 번째 무대는 국악단과 합창단의 공동 연주 '천둥소리'로 웅장하게 시작한다. 안산시의 문화예술적 지표가 되는 두 예술단의 수준 높은 공연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흔치 않는 무대이다. 다음으로 안산시립국악단의 멋진 연주에 국악인 박애리, 비보이 리듬몬스터 등의 협연으로 'sing, sing, sing', '공항의 이별', '연안부두' 등 국악기로 연주되는 대중음악의 향연을 즐길 수 있으며, 이어 안산시립합창단의 '나의 노래', '팔소성', '세계민요 메들리'

등 아름다운 하모니와 율동이 가을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 계획이다. 사랑과 희망을 노래하는 가수 안치환은 '내가 만일', '인생은 나에게 술한잔 사주지 않았다' 등 의미 있는 노랫말들과 거칠지만 감미로운 음색으로 시민들의 감성을 자극하게 될 것이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대중적인 노래를 하는 성악가 김동규는 그의 대표적인 곡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국악단의 연주에 맞춰 합창단과 협연을 한다. 이번 가을음악회는 그동안 시민들이 보여준 안산시립예술단에 대한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야외무대에서 준비하였으며, 클래식과 대중성을 골고루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폭넓은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시와 안산시립예술단의 마음을 잘 표현한 무대가 될 것이다.

• 공연문의 : 안산시립예술단 ☎ 031-481-4097~8
안산시 문화예술과 ☎ 031-481-2064

제1회 2015년 안산패션타운 페스티벌 개최

대규모 할인행사와 문화공연으로 소비심리 회복기대

안산패션타운 발전협의회는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사동 안산패션타운 일대에서 대규모 할인행사와 문화공연을 마련한다. 이번 행사는 금년 메르스 사태 이후 위축된 안산의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안산패션타운 상가발전 협의회가 제안하고 경기도와 안산시의 후원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행사내용은 안산패션타운 입점매장 전 상품 30~80% 할인과 더불어, 3억 5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 발행을 통해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할인행사와 더불어 진행되는 문화공연에는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걸그룹 마마무를 비롯해 정수라, 페이머스, 바바 등 유명연예인

초청공연과 함께 팔도웃놀이 한마당, 7080라이브 콘서트, 시민노래자랑 등 다양한 참여행사를 준비하였으며, 자동차, 대형TV, 냉장고 등 푸짐한 경품도 준비해 지역주민에게 더 큰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를 주최하는 안산패션타운 발전협의회 홍세현 상가발전협의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위축된 소비심리가 회복되어 그동안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산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했다.

• 문의 : 안산시 지역경제과 (031-481-2844)

문의 031-481-8599

‘청년인큐베이팅’으로 청년 창업 꿈이 활짝

서울예대 꿈뚱크루, 10월 31일, ‘제1회 꿈아끼다 뚱된다’ 페스티벌 연다



안산시가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에 선정된 꿈뚱크루 팀이 첫 발을 내딛는다.

안산시는 지난해 12월 ‘NEXT 경기 창조 오디션’을 통해 도비 19억 원을 확보한 가운데 시 예산 5억 원을 포함, 총 사업비 24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17년까지 1차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창업 인큐베이팅은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상가 내 공실을 창업희망 청년들에게 제공해 그들이 자유롭게 융복합실험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예대 학생 8명으로 구성된 ‘꿈뚱크루’는 10월 31일과 11월 1일 이틀간 안산문화광장에서 ‘꿈아끼다 뚱된다 페스티벌’을 연다. 꿈뚱크루는 지난 6월 MnJ문화복지재단에서 공모한 ‘꿈 프로젝트’에 당선된 후 안산시에서 추진하는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사업에 선정돼 사무실 등을 지원받았다.

꿈뚱크루 류주형 대표(실내디자인과)는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한국의 젊은 이들의 암울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낄 게 따로 있지, 꿈을 아낄 것인가?’를 의미하는 꿈뚱페스티벌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문화예술기획자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스스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분야의 사람들에게 문화예술 현장을 체험하게 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꿈뚱페스티벌은 배움장터, 재능장터, 나눔장터, 만남장터로 구성,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축제를 지양하고 참여자가 공연을 바라만 보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공연문화를 바꿔보고자 한다.

꿈뚱페스티벌은 기존 페스티벌과 차별화된 공간을 연출하기 위해 학생다운 독창적 공간을 기획했다. ‘업 사이클링(up-cycling)’을 도입, 무대 등 모든 공간을 우드 팔레트(wood pallet)를 사용해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업 사이클링이란 기존에 버려지는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디자인을 가미하는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우드 팔레트에 팝 아트(드로잉, 컬러)적인 요소를 첨가해 재미를 주는 공간을 마련한다.

최문혁 공동대표(실내디자인과)는 “2명이 시작해 현재 8명이 밑그림을 그리고 미션을 수행하듯 각자 역할을 다해주어 이제 축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함께 모여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줄 때 보람있어요.”라고 말했다.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이승민 학생(광고창작과)은 “과거 우리의 역사 속 청년들은 학회를 만들고 독립운동을 하며 사회에 큰 역할을 하던 것에 비해 요즘 청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많이 생각해봤어요. 우리의 열정이 일파만파 퍼져나가 행사 참여자들에게 골고루 전해지기 바랍니다.”고 했다.

꿈뚱크루는 다양한 사람들을 장(場)에 모이게 하여 함께 배우고, 느끼고, 공유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능동적이고 건강한 사회로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문의 : 꿈뚱크루 블로그
(<http://blog.naver.com/dreamdong2015>)

신선영 명예기자 (woghk@hanmail.net)

2015 청년 ‘히든챔피언을 잡아라’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안산시는 청년층 취업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2015년 청년 ‘히든챔피언을 잡아라’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본 프로그램은 11월 2일부터 11월 23일까지 4주에 걸쳐 진행되며, 개별상담 4시간을 포함하여 총 2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급여나 업체의 복지 수준이 대기업 못지않은 강소기업이나 차세대 유망 첨단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을 히든챔피언이라 칭하고 해당 기업에 취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진행된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만 34세 미만의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전문

컨설턴트를 배치해 밀착상담을 진행하고 조별활동을 통해 관내 강소기업체의 발굴 및 기업체 현장 탐방, 직무 이해와 그 업체에 맞는 구직 능력 함양 등을 분석, 파악하고 입사지원서 작성법 등 직무능력 향상을 구직자에게 맞는 일자리로 취업을 지원한다.

청년 구직자 중 취업의지, 목표의식 등 대상자 선정 심사 항목에 따라 19명을 선발한다. 참여자 모집기간은 10월 20일부터 29일까지이며, 안산일자리센터(☎ 031-481-2918)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강의실력을 향상시켜드립니다 ‘나도 강의 전문가’ 강의 스킬업!

안산시 여성비전센터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창업 지원을 향상 위해 ‘강의 스킬업(skill-up)’ 무료특강을 연다.

‘강의 스킬업(skill-up)’은 11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 매주 월요일, 목요일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여성비전센터 본관 1층 갤러리실에서 진행된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강사관련 분야의 취업을 준비하는 경력단절여성들에게 강의기법을 제공하고 교육과정 설계, 발표의 두려움 극복하기,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스팟 및 팀빌딩, 까다로운 참여자 다루기, 스토리텔링 기법, 미니 강

의 시연, 강사의 자기조절 훈련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게 된다.

여성비전센터 김창섭 소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강사직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들이 강의 기법을 좀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접수기간은 2015년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방문, 전화, 인터넷 선착순 접수이고, 자세한 내용은 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wm.iansan.net)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 안산시여성비전센터 (☎ 031-481-2765)

젊음과 건강 지켜주는 블루베리, 선부동 105번지 안산블루베리농장



도일 사거리에서 부천 방향으로 100m 쯤 올라가면 안산블루베리농장(단원구 선부동 105번지)이 나온다. 안산이 고향인 안정현(61세)·목정옥(56세) 부부가 세계 10대 슈퍼 푸드 중 하나인 블루베리를 천연효소를 이용해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는 곳이다. 젊은 시절 국가대표 역도선수로 활동했던 안씨가 2008년 귀농해 비닐하우스 330㎡로 시작한 농장이다. 농장의 규모는 현재 온실 1,650㎡를 포함 9,900㎡로 커졌다. 농장을 열면서 처음에 심었던 묘목 3,000주는 5,000주로 불어나 매년 5톤 가량의 수확을 부부에게 안겨준다.

블루베리는 산성토양에서 잘 자란다. 이곳 안산농장에서는 북미 지역에서 수입한 블루베리용 전용 상토로 블루베리를 키운다. 블루베리가 해충에 강하기도 하지만 친환경농법으로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이곳에서는 농약은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크고 싹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천연재료들을 발효시킨 미생물 효소를 화학비료 대신 사용하고 있다. 안정현 씨는 안산시 농업기술센터와 경기도 농업진흥청에서 농법을 익혔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농장을 찾아주세요.”라며 토양에서 미생물 비료까지 블루베리 관련 지식을 나누고자 한다.

4월에 꽃이 피 6월 중순부터 9월 초순까지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는 묘목을 심은 다음해부터 수확이 가능하다. “블루베리는 심고서 이듬해 바로 수확할 수 있어 소득을 올리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장점이 있다. 블루베리 재배는 FTA 파고를 넘어야 하는 농가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안정현 농장주는 설명한다. 또 농장을 체험공간으로 개방해 열매를 따보고, 직접 수확한 블

루베리로 잼이나 와인, 효소, 떡, 비누 등 만들기와 관광이 가능한 1·2·3차 산업이 융합된 6차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 6월에서 9월까지 안산농장에는 약 300명의 인원이 다녀갔다고 한다. 자녀와 함께 와서 직접 블루베리도 따 보고, 수확한 열매를 양껏 먹고, 잼도 만들 수 있는데다가, 직접 딴 신선한 블루베리 생과를 4인 가족 기준 2kg 씩 가져갈 수 있어 열매따기 체험 프로그램은 인기가 많았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많은 천여 명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이다. 블루베리 생과는 1kg에 2만5천 원에서 3만 원에 판매한다.

블루베리는 시력 회복과 증진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망막 변성과 백내장을 막아주는 효과도 크다. 효능은 이뿐만이 아니다. 짙은 보라색 껍질에 함유된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 성분은 항산화 작용으로 뇌세포의 노화를 막아 뇌졸중 등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다. 안정현 농장주는 “이 곳 안산블루베리 농장은 건강이 시작되는 곳”이라며 “우리 몸 안의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정혈 작용에도 관여하는 블루베리를 많이들 잡숫고, 건강하게 장수하시라.”고 말했다.

·문의 : 안산블루베리농장(단원구 선부동 105)
(☎ 010-8693-6700 / 010-9290-5917)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가을 속으로 걸어가 어촌의 삶을 보다

○ 대부해솔길 3코스

대부해솔길 3코스 (9.6km)
(소요시간: 2~3시간)

어심낙시터 ▶ 아일랜드CC ▶ 선재대교 ▶ 한사위방조제

가을이 짙어간다. 운동화 끈을 매고 가을 햇살을 막아 줄 모자를 챙겨 길을 나선다. 대부해솔길 3코스는 어심낙시터(단원구 대부북동 1109)에서 시작한다. 어심낙시터는 1,652㎡의 면적에 평균 수심 3.8m로 150개의 좌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바다고기를 평일은 1회, 주말은 2회 방류한다. 이른 시간이지만 낚시꾼들은 손맛을 기대하며 도구 준비에 여념이 없다.

낙시터 주차장을 가로질러 나가면 해안가가 나온다. 시원한 바람에 가슴이 탁트이고 물 빠진 갯벌에 비친 햇살이 눈부시다. 멀리 보이는 광도와 주도는 평화롭기 그지없다.

바닷가 풍경에 마음을 뺏긴 가벼운 발걸음을 해솔길을 알리는 이정표가 붙잡는다. 오른쪽으로 가면 해안가를 따라 걸을 수 있고, 직진하면 선재대교와 아일랜드CC 방향 산길이다. 산길로 방향을 잡고 오르니 가을의 풍성함이 보인다. 도토리며 갖가지 열매가 땅에 떨어져 있고, 마지막 삶을 불태우는 매미의 간절한 울음이 귓가를 맴돈다.

아무도 없을 것 같은 산길에서 갑자기 말소리가 들려온다. 고개를 돌려보니 왼쪽으로 아일랜드CC가 보인다. 아일랜드CC는 세계 100대 골프장 설계자 데이비드 데일이 설계한 곳으로 27홀 전체에서 바다를 보며 라운딩을 즐길 수 있다. 주변을 둘러싼 해상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갯벌에서 나오는 오존, 청정지역 대부도의 바람이 골퍼들의 건강을 두 배로 지켜준다. 나무가 꽤 울창한 105.9m의 큰 산 정상에서 잠시 호흡을 고르며 아래를 내려다보니 바로 아래 흥성리 선착장과 선재대교와 선재도가 보인다.

선착장 주변에서 낚시하는 사람들과 멀리 어촌 마을의 풍경이 그림처럼 평화롭다.

다시 발길을 돌려 길을 걸으니 대부도 명물인 포도농장이 펼쳐진다. 올해 농사를 끝낸 농부의 손길은 벌써 내년을 준비하고 있었다. 잘 발효된 거름을 수레로 옮겨 포도나무 주변에 뿌리는 농부의 손길 일분주하다.

걸음을 옮길수록 어촌주민들의 삶이



보인다. 한때 많은 주민이 거주했을 마을이 이제는 정적이 감돌고, 어린 자식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남아나지 않았을 감나무의 감은 발갈게 익은 채 시들어가고 있었다. 곳곳의 주인이 떠난 빈집은 본연의 임무를 잃어버린 채 퇴색해 버렸고, 잡초만 무성한 앞마당엔 쓸쓸함이 가득하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며 걷다보니 어느새 3코스 종착점이다. 홀콘 경로당 옆 버스정류장에 앉아 버스 시간표를 보니 버스가 오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았다. 무작정 걸어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잠시 멈

춰하다 대부도의 인심을 믿으며 지나가는 트럭에 도움을 청했다.

역시! 예상이 적중했다. 인심 좋은 대부도 토박이 어르신 배려로 어심낙시터 입구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었다.

부지런히 길을 나선 까닭에 막힘없이 다닐 수 있고 대부도의 넉넉한 인심을 느끼고, 싱싱하고 맛있는 해산물로 입맛을 살리니 이보다 더 좋은 여행이 어디 있랴.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안산의 기업탐방 I

미국에서는 최근 비싼 값을 치루더라도 자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made in USA에 대한 소비자들의 변화가 일고 있다고 한다. 안산스마트허브의 주거·교육·생활·환경 등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배후도시 안산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널리 알려 시민이 지역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호부터 안산 시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소개한다.

국내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진 수전금구 전문 제조업체, (주)다다



(주)다다는 1965년에 수도꼭지 전문 생산업체인 '이공사'로 창립되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샤워꼭지 생산을 시작하며 국내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진 수전금구 전문 제조업체이다.

1965년 7월 서울시 마장동에 '이공사' 설립, 1976년 '물개표'라는 상표를 등록했다. 1979년 9월 15일 안산 반월공업단지(안산스마트허브)로 확장 이전하면서 법인체로 전환했으며 1982년에는 (주)물개표로 상호를 변경하여 제품 브랜드와 기업명을 일체화시켰다. 1993년 (주)다다로 상호를 변경, 1994년에는 사옥을 신축하여 이전했다.

설립 당시 5명으로 시작해 50년이 지난 현재 1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대지 3,200평에 건물 2,000평의 사업장으로 꾸준히 규모를 키워나갔으며, 이사회 회장과 이성우 대표이사 체제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

(주)다다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며 우수한 품질의 수전금구 생산에만 전념해 온 전문업체로서 오랜 경험과 창조적 개발의지를 가지고 한국인의 체형과 사용습성에 맞는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제품을 꾸준히 생산해왔고, 독창적이고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시장개척을 통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다.

1978년 '제1회 우수건축 자재 전시회'에 출품해 건설부장관상 수상, 2001년 kela(한국환경마크협회)로부터 환경마크 획득, 2011년 녹색환경제품 국무총리상 수상 등 동종업계 최다인 170여 개의 환경마크 인증을 보유했다.

(주)다다가 추구하는 디자인 컨셉은 '맑은 물, 아름다운 환경'으로, 국내 최대 환경마크 보유(최대성), 국내 최초 핸드샤워기 개발(최초성), 국내 최장 50년의 기술 개발과 노하우 축적(최장성)이라는 자부심과 비전으로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강우 자재무역총괄이사는 여름 온

수사용을 줄이기 위한 절수 수전, 레버를 올리지 않고 터치만으로도 물이 나오는 터치식 싱크 수전, 냉수가 먼저 나오도록 냉수구간을 좁게 잡은 에코 수전 등 신개념 수도꼭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유해물질 유출 여부와 절수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다. "물을 다루는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이윤만 추구할 게 아니라 성숙된 마인드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며 친환경 제품 제조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원부자재 가공 시 도금을 마치고 남은 납을 용출시키는 설비를 사용하는 등 납 성분 사용량을 KS 기준보다 낮췄다. 호스는 온수가 장시간 머무를 경우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이중 튜브관을 사용한다. 연결부분의 너트 등도 아연 재질의 주물이 아닌 유압을 이용해 찍어내는 단조(鍛造, forging : 고온에서 금속을 녹인 뒤 기계나 해머로 여러 번 두드려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가공 공정)로 보다 단단한 부품을 사용한다.

3층에 전시된 제품들이 50년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준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기술을 연구해 생산한 제품들이 시리즈로 진열되어 있다. 좌식 생활을 하는 일본의 풍습에 맞춘 좌식 샤워기도 눈길을 끈다. LH, SH 공사를 비롯해 국내 유수의 건설사에 납품을 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 동남아에 수출을 하고 있다.

생산현장에서 이강우 이사는 "소비패턴의 단계가 빨라 출시에서 단종까지 기간이 짧은 수전 제품의 특성상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머싱센터'에서는 정밀하게 부품을 찍어냅니다. 컴퓨터 명령에 따라 기계가 움직여 불량이 없습니다. 자동화시설로 생산성을 높이고, 넓은 공간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쿨링 시설을 개발·설치해 열기를 식혀주고 있구요. 가공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지

는 황동가루를 모으는 보조시설로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함은 물론 리사이클링을 통해 원가를 절감한다."고 했다.

테스트실에서는 30만~50만 회 동작, -25℃~80℃의 온도에서의 내구성 실험을 통해 누수와 동파 등을 테스트한다. 조립 공정에서도 2회 테스트 과정을 거쳐 완제품을 출시한다.

(주)다다는 자회사 다다전자, 다다닉스를 두고 수전에 필요한 센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해 수전의 모든 공정을 자체적으로 해결해 완제품을 만들고 있다. 이는

재고·출고 관리가 명확하고 시장의 흐름에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기동력이 된다. (주)다다는 친환경적 품질 경쟁력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글로벌 명품 브랜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문의 : (주)다다(www.dadacorp.co.kr)
☎ 031-492-2281~3
단원구 원시동 731-5 반월공단 4B-16호(산단로 97)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사진 김진형 명예기자 (econojin@naver.com)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사회, 덜 사고 덜 버리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최선입니다.

안산문화광장 재활용 나눔장터

일시 : 2015년 10월 24일(토) 오전 10:00~오후 3:00

장소 : 안산문화광장 (NC백화점 앞)

환경도 살리고, 삶의 질도 높이는 장터!!!

- 누구나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가져와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공연과 각종 체험행사를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 도자기체험, 솟대만들기 등 예술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구도 살리고, 살림에 도움도 되는 장터!!!

- 폐가전제품(휴대폰, MP3, 휴대용 게임기 등), 폐건건지, 우유팩(1kg 이상)을 가져오시면 친환경물품을 드립니다.
- 소형가전 1개이상(토스터, 믹서, 선풍기 등등), 교육교구 3점이상(멜로디언, 버루, 탬버린 등 학교교육교구)을 가져와 판매하시면 기념품을 드립니다.
- 중·고등학생 물품판매 참가자는 자원봉사확인서를 발급해드립니다.

재활용나눔장터 운영규칙

- 재활용품 판매를 원하시는 분은 신분증과 뒷자리를 지참해야 합니다.
- 상인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새물건(핸드메이드제품 포함)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총 50점 이하의 재활용품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 ※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바로 퇴장조치 됩니다.

주최 안산자원순환사회연대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산YWCA, 소시모안산지부,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주최 안산시 청소행정과

문의 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05



‘제30회 안산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안산시민 한자리에 모여 행복한 추억 만든다

‘제30회 안산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체육 대회가 지난 10월 9일 초지동 신안산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렸다. 청명한 가을하늘 아래 안산의 25개 동 주민 1만여 명이 참가한 이날 체육대회는 구별로 열리던 행사에서 3년 만에 안산시민이 한자리에 모인 뜻 깊은 자리 가 됐다.

안산시 태권도시범단의 절도 넘치는 태권 무 시범공연과 제51보병사단 정예군악대의 화려하고 웅장한 사열공연에 이어 25개 각 동 특성을 드러낸 다채로운 동별 입장식이 진행됐다. 와동은 곤충 사진이 붙은 피켓을 들고 제일 먼저 입장해, 최근 와동체육공원

안에 문을 연 ‘곤충체험관’을 알렸다. 상록수 마을 본오3동은 주민들이 최용신과 학동으로 분장했고, 원곡본동은 외국인주민들과 함께 입장해 다문화마을의 면모를 보여줬다.

안산시민들은 가까운 이웃 동별로 소통·나눔·행복·상상 4개 팀으로 묶여 대형 풍선을 전하는 ‘지구를 옮겨라’ 게임과 긴 줄을 넘고 피하는 ‘인간파도타기’, 단체줄넘기를 하면서 화합과 소통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각 동별 열띤 응원전은 경기장을 더 한층 뜨겁게 달궜고, 동별 대항 줄다리기에서 주민들은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로 힘껏 줄을 당기며 “영차 영차” 외쳤다. 주민들은 이어달리

기에서 선두로 달리던 주자가 넘어지자 탄식을 내뿜으며 안타까워했고, 바턴 터치로 주자가 바뀌고 앞선 사람을 따라 잡아 선두가 바뀔 때에는 “와~”하는 함성도 터져 나왔다.

3부, KBS 개그맨 김재욱의 사회로 진행된 안산시민 노래자랑대회는 25개 동의 가수들이 나와 실력을 뽐내고 즐거움을 선사했다. 안산의 다양한 행사에서 단골로 MC를 맡아 온 김재욱은 노래자랑 사이사이 개그를 보이며 흥을 더했다.

체육대회의 종합우승은 안산동이 차지했다. 한 달 동안 대회를 준비해온 안산동은 ‘안산 천년의 뿌리! 안산동 넘버원~’이라는 주

제로 주민 300여 명이 참가해 축제를 즐겼다. 준우승은 월피동에 돌아갔고, 응원상은 초지동에게 전해지며, 한층 더 뜻 깊은 행사로 내년을 기약하며 막을 내렸다.

체육대회 및 노래자랑 결과

종합 우승(안산동), 종합 준우승(월피동), 3위(이동), 4위(선부2동), 5위(성포동), 응원상(초지동), 참여상(원곡2동), 모범상(사3동), 입장상 1위(사1동), 입장상 2위(호수동), 입장상 3위(본오3동), 노래자랑 1위(호수동, 오형연), 2위(부곡동 최덕일), 3위(고잔2동, 신연화), 인기상(사2동, 정유빈), (월피동 정주미)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안산문화재단이 추천하는 11월 공연

ASAC '아산'은 AnSan Arts Center 이니셜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기획프로그램 브랜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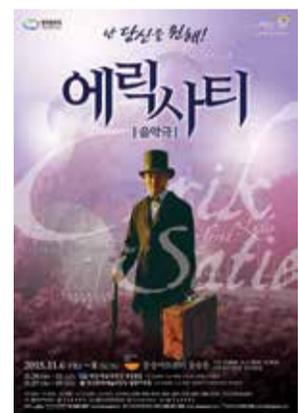
<전시> 뜻밖의 발견

- 공연일정 : 10월 8일(목) - 11월 15일(일)
- 공연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실내외 일원
- 출연 : 박호산, 김태한, 배해선, 한성성, 신문성, 김용호
- 관람료 : 무료
- 공연내용 : 뜻밖의 공간에서 마주하는 예술의 표정들. 전당의 실외 광장 공간과 계단 공간에는 구리, 스테인레스, 콘크리트, 업 사이클링 등 다채로운 재료들이 적용되어 완성된 조각 작품들이 배치되어 각각의 재료적 물성이 자아내는 오묘한 이야기들이 전개된다. 전당을 찾은 관람객들은 조각 공원을 소요하듯 작품을 살피고, 전당의 실내 공간에서 조각작품을 직접 찾아내는 즐거운 관람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콘서트> City Beat Party

- 공연일정 : 11월 20일(금) - 11월 21일(토)
- 공연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 출연 : Giriboy, Paloalto, Vasco, Huckleberry P, Souldive 등
- 관람연령 : 중학생 이상 관람가
- 관람료 : 전석 30,000원 / 청소년 20,000원 / 키움티켓 6,000원
- 공연내용 : 국내 힙합레이블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Just Music의 대표 랩퍼들인 기리보이, 천재노창, 바스코, Hiliterecords의 수장인 팔로알토, 비프리, 허클베리 피가 출연하며 국내 인디 힙합씬을 평정하고 국내 최고 실력을 자랑하는 소울다이브와 스트리트 힙합 프리스타일 최강자 서출구까지 그 어느 힙합 공연보다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한다.



<뮤지컬> 에릭사티

- 공연일정 : 11월 27일(금) - 11월 29일(일)
- 공연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 관람연령 : 8세 이상 관람가
- 관람료 :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청소년(R석 18,000원, S석 12,000원) / 키움티켓(R석 12,000원, S석 6,000원)
- 공연내용 : 19세기 인정받지 못한 천재작곡가 에릭사티의 드라마틱한 인생을 음악극으로 풀어낸 안산문화재단의 제작공연 <에릭사티>는 2011년 초연부터 다양한 발전을 거듭하여 제작되었다. 그림자 놀이, 자이언트 퍼펫, 마임 발레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음악세계를 구축해 왔던 사티의 실험정신을 음악극 속에서 엿볼 수 있다.

내가 만든 그릇을 쓸 수 있다는 특별함

안산도예사랑회展, 오는 11월 2일부터 8일까지 단원미술관에서 열려

오는 11월 2일부터 11월 8일까지 단원미술관 제2관에서 안산도예사랑회 정기 전시가 열린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이번 안산도예사랑회 전시에 18명의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안산도예사랑회는 김윤석 도예가의 지도로 단원미술관, 안산예술의전당 등에서 전시를 꾸준히 열고 있으며 생활도예를 만들고 있다. 생활도예의 장점은 정신을 집중하여 손을 움직여서 창작성 있는 기물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년에 찾아올 수 있는 무료함을 달래고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회원들이 입을 모은다.

생활에 필요로 하는 식기나 조형물을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이다. 내가 필요한 물건을 자유롭게 창작하고 표현해내는 감각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도예 전시의 불모지였던 안산에 처음으로 도예 전시를 열었다는 데 회원들은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안산도예사랑회 회원 이경주 씨는(57



'물결' 정종운 작



'화기' 이경주 작

세)는 "13년째 월피동주민센터에서 도예를 하고 있는데 작품을 만들고 있는 동안에 다른 생각이 안 들어 좋아요. 작품들은 대부분 만든 사람을 닮아가는 것 같은데, 나를 닮은 작품이 나오니 참 좋지요. 엄마가 작품을 만든다는 점에서 아이들에게 본이 되기도 해요. 손으로 직접 만들기에 매끄럽지는 않지만 도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가치를 알아보지요. 잡

념이 없어지니 정신건강에 참 좋아요."라며 도예사랑을 했다.

도예를 배운지 1년 정도 된 이영주 씨(56세)는 "직장을 다니다 쉬고 있었는데 취미생활을 찾던 중 도예를 알게 되었습니다. 흙을 만지며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자 시작했지요. 흙으로 무엇을 빚어낸다는 게 쉽지 않아 힘들기도 했지만, 완전한 제품은 아니지만 나름의 결과물을 보니 차

츄 용기가 났어요. 자녀들이 집에 올 때마다 만들어진 도예를 집어가곤 하는데 뿌듯합니다."라고 말했다.

김윤석 도예가는 "도예는 한마디로 '정신수양'이다. 또 도예는 인생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도예를 만들다 잘 안될 때 인생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한고비 한고비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인내심도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다고도 할 수 있다. 아이를 돌보듯 자주 들여다봐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리기 때문에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때로는 참을성을 키워야 하는데 못 참으면 흙을 이길 수가 없다."며 도예의 의미를 짚어주었다.

도예는 입체이고 어떤 모양이든 그 모양이 완성되는 작품이기에 창작을 하는 과정 중 스트레스를 그나마 덜 받는다고 한다. 모양이 어떻든 의미가 있고 생긴 그대로 작품이 되기 때문이다. 잘 만들어진 작품과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편안한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즐기면서 흙을 빚으면 되는 작업이다.

창작의 감각을 키우며 내가 만든 그릇을 쓸 수 있다는 특별함이 있는 도예. 그 특별함이 있는 공간에서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자.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엄마들이 뜨개질을 멈출 수 없는 이유

세월호 엄마들을 위로하는 '엄마의 이야기 공방'



세월호 합동분향소 유가족 대기실 한쪽에 마련된 '엄마의 이야기 공방'. 이곳은 엄마들이 모여서 바느질을 하고 리본을 만들며 마음에 위안을 받는 공간이자, 세월호 참사 이후 함께해준 고마운 분들에게 보낼 작은 선물을 만드는 곳이다. 엄마들은 집에 혼자 있으면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을 이곳에서 계속 뉘갸를 만들어내면서 버텨왔다고 했다. 공방에 있는 내내 엄마들의 손길이 쉴 새 없이 움직였던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공방에서 장인으로 통하는 순범 엄마와 태민 엄마 옆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전직 미용사였다는 두 분이 참사 이후 도저히 일을 할 수 없게 됐다는 말을 듣고 잠시 머

리가 멍해졌다. "도저히 학생들 머리는 못 만지겠더라고요." 바느질을 하면서 아이들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태민이는 요리사가 꿈이었어요. 함박스테이크를 배워서 해줬죠. 내년에는 더 많이 배워서 생일상 근사하게 차려준다고 했는데..." 오랜만에 하늘공원에 다녀왔다는 순범 엄마는 가만히 있으면 아이가 더 생각나고 힘들어서 이곳에 온다고 한다. "집에 혼자 있으면 속이 답답하고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데, 그나마 여기서 계속 몸을 움직여 뉘갸를 만들면 작은 위안이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엄마들은 어디를 가든 항상 뉘갸를 만들었다. 팽목항에선 누군가 가르쳐준 수예를 배

워 밤새도록 노란리본을 만들었고, 청운동에선 노란우산 천을 잘라 리본을 만들었다. 그 뒤로 하나 둘 늘어난 공예물건들은 브로치, 목도리, 압화 등으로 다양해졌다. 순범 엄마는 평생 할 바느질을 최근 1년간 손가락에 핏기가 박힐 정도로 다 한 것 같다고 한다. "처음에는 오시는 분들에게 감사표시를 하다가, 이렇게 커졌죠. 달아드리면 뿌듯하더라고요." 엄마들이 이렇게 많은 공예작품들을 만들 수 있게 된 건, 매주 재능기부로 엄마들에게 기술을 전수해주는 선생님들의 도움도 컸다. 매주 이곳에서 캘리그라피, 퀼트, 천연화장품, 원예 수업이 열려 엄마들의 실력도 일취월장하고 있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들로 오는 10월 31일과 11월 1일에 '엄마랑 함께하장'이란 플라마켓이 화랑유원지에서 열린다. 이날 엄마의 이야기공방에선 소원팔찌, 브로치, 머리핀, 원예, 퀼트, 양말공예 작품 등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거나 판매할 예정이다. 여기서 나온 수익금은 세월호 희생자가 발생한 안산 3개 동 지역아동센터의 월동 난방비로 지원된다. 행사를 준비하면서 엄마들은 버스를 타든 뉘갸 하는 계속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태민 엄마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라도 더 만들려고 노력한다. 이게 누군가 손에 들려져 좋은 일에 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작업대에 쌓여있는 노란리본을 보며, 엄마들에게 노란리본이 어떤 의미를 줄까 물었다. 순범 엄마는 매주 금요일, 중앙동, 상록수역, 선부동으로 피켓팅하러 나갈 때마다 노란리본을 단 학생들이 다가와 '저 이거 했어요' 할 때마다 힘이 난다고 한다. "거리에서 세월호 스티커 붙여 있는 차만 봐도 쫓아가서 그분 얼굴을 보고 싶을 정도예요. 별거 아니지만 마음에 큰 위안을 받게 되요. 그래도 아직 잊지 않으셨구나..."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가을, 가벼운 등산을 원해요! 선부동 정지(正芝)공원

산등성이에 서니 청량한 바람소리가 들린다. 비가 내린 후 하늘은 높고 맑아 정오의 공원은 더욱 상쾌하다. 산에서 듣는 바람소리에 귀와 마음이 먼저 열리고 눈이 즐거운 가을이다.

지난 10월 12일 정오를 조금 지나 정지공원에서 산책 겸 운동하는 지역 주민을 만났다. 선뜻 동행을 허락해주고 정지공원 구석 구석을 돌아볼 수 있게 안내를 해주었다.

정지공원은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도시 근린공원으로 선부동 지역 주민의 건전한 여가 생활과 체력 단련에 기여할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산구릉에 조성되어 있어 산지형공원이라고도 한다. 제1정지공원은 총 62,022㎡ 면적으로 지압산책로,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장 등이 트래킹 코스를 따라 조성되어 있다. 제1공원의 특징은 산책로 바닥의 재질을 각각 달리하여 색다른 맛을 주고 있다. 제2정지공원 부지 면적은 71,537㎡으로 제1정지공원과 생태연결교량으로 이어져 있다. 각종 편의 시설과 여러 갈래의 가벼운 등산코스가 있다.

제1정지공원을 도는 데는 약 15분 정도 걸린다. 함께 동행한 안내자는 15분 걸리는 공원을 서너 바퀴 돌며 한 시간 정도 운동을 한다고 한다. 각기 다른 재질의 바닥을 걷는 재미를 느끼며 생태연결 교량을 건너 제2

정지공원으로 들어섰다. 공원이라기보다는 산에 왔다는 느낌이 들었다. 키 큰 나무들로 둘러싸인 산이라고 하는 게 맞을지, 구릉이라고 하는 게 맞을지 고민이지만 산이든 구릉이든 무슨 상관일 있을까. 날씨도 한몫했지만 아주 깊은 산속을 걷는듯 자연과 아주 살갑게 마주한 느낌이 들었다.

집 근처이기에 아무 때나 시간될 때마다 정지공원을 들른다는 안내자는 혼자서 정지공원을 찾는 시간이 즐겁다고 한다. 생각할 시간을 갖고 내 발걸음이 가는대로 여유롭게 천천히 걷기에 여럿 보다는 혼자 더 좋다고 한다. 손쉽게 공원을 돌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사계절 내내 공원을 찾지만 무엇보다 겨울에 오르는 느낌이 좋다고 한다. 여러 갈래 등산코스는 어디로 가든지 연결이 된다. 초행인 필자를 위해 안내자는 평소 잘 안 가던 길까지 안내를 해주며 말동무를 해주었다.

이따금 부는 바람과 지저귀는 산새소리, 운동으로 인한 적당한 열기는 자연만이 줄 수 있는 풍부한 체험으로 돌아왔다. 어느해인가 갓 부화한 새가 어미새무리를 이탈해 올라가지 못하고 있을 때 손으로 올려주어 어미새무리를 따라가도록 해주었다는 안내자의 훈훈한 미담도 들을 수 있었다. 다람쥐와 청솔모 등도 만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지공원 등산로에 유난히 밤나무가 많이 보였다. 지금은 빈 밤송이들 뿐이었지만 알밤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눈에 띄는 알밤을 까먹으며 걷는 묘미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간혹 일부러 밤을 따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안내자는 산속 동물들이 먹도록 놔두면 좋을 텐데 일부러 따가는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한다.

정지공원 이름이나 지역에 관한 유래(안산시사 제5권 선부동 지역 유래 편 참조)는 '정지막골[正芝幕谷]'이란 옛 지역 이름에서 오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본다. 정지막골은 비누지와 거미를 사이로, 선부동 은행나무 주변에 있었던 마을이다. 구전에 따르면 조선 말엽 마을 중앙에서 오지그릇을 구워

처음에는 점막골[店幕窟]이라 칭했다가, 그 후 민가가 생기면서 마을이 형성되자, 정지촌(正芝村)으로 개칭하였는데 흔히 정지막골로 불렸다고 한다. 산지형 공원이지만 산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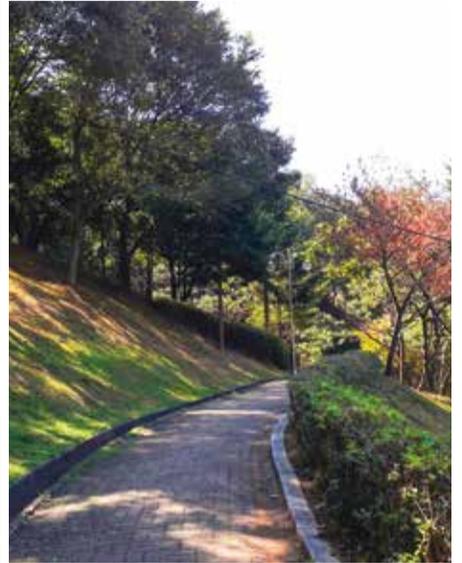
가벼운 등산을 원한다면 주말에 선부동 정지공원을 둘러보는 것도 좋겠다. 재질이 다른 바닥을 걸어보고 높지 않은 산등성이를 오르내리며 맑은 공기를 마시면 일주일의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을까. 가까이서 산지형공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추억이 담긴 야트막한 뒷동산, '중앙공원' 이야기



중앙공원(단원구 고잔동 산 20)은 1997년에 안산시청 뒤의 야산을 공원화하여 산책과 운동, 삼림욕을 할 수 있도록 417,745㎡로 조성됐다.

올림픽기념관 옆 주택가, 시청 뒤 주차장, 경안고등학교, 덕성초등학교 후문, 삼일로 방향으로 산책로가 나 있다.

안산시청에서 안산소방서를 끼고 왼쪽으로 돌아 경안고를 바라보고 걷다 보면 왼쪽으로 중앙공원 가는 오르막길이 나온다. 자동차를 타고 주차장까지 오르면 오르막을 오르는 수고로움을 조금 덜 수 있다. 주차장 옆에는 실내 배드민턴장과 화장실, 매점이 있다.

총길이 3,400m를 걸으면 보행속도에 따라, 체중에 따라 칼로리 소모량이 적힌 발바닥 모양의 안내판이 서 있다. 높게 자란 나무들이 드리우는 그늘에 안도하며 걸음을 옮기다보면 언덕에 오른 듯 시야가 넓어진다. 아래쪽에 붉은 지붕의 이웃 동네가 보인다. 산책길은 사방팔방으로

나 있다. 오른쪽에 청림동산이라고 쓰여 있는 커다란 바위를 마주보고 서 있노라니 욕심을 비워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이 든다. 살펴보니 뒷면에 '나무는 햇볕 좋은 언덕이나 기름진 땅을 다투어 탐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2011년 안산시 신규 공직자와 녹지와 직원들이 태풍 '곶파스' 피해지에 조성한 동산이라는 설명이 새겨져 있다. 욕심 없는 강직한 나무를 닮고자 하는 공무원의 마음이 '청림'이라는 메시지로 전해온다.

이때 한 무리의 공무원들이 바빠 지나간다. 12시 35분. 점심시간의 여유를 즐기기에 조금 벅찬 산책인 듯 청림동산을 우회해 시청 뒷길로 빠져나간다.

지난봄, 벚꽃이 한창일 때도 비슷한 차림새의 바쁜 행렬과 마주쳤었다. 그때 그들도 하얀 팝콘 같은 꽃송이들을 지나쳤다. 꽃잎과 햇빛을 무심히 밟고 지나갔다. 직장에 다니던 20대의 내 모습도 비슷했겠지. 개나리, 벚꽃, 매화, 진달래가 만발

했던 공원은 이제 비슷비슷한 나뭇잎들만 무성하다. 벚꽃이 무성했던 나무 밑에는 낙엽이 꽃잎처럼 떨어져있다. 나무계단 한쪽의 밤갸질 무더기를 보며 봄에 보지 못했던 밤나무를 발견한다.

그리고 보니 감나무, 호두나무도 있고, 소나무가 경사에서 가지를 뻗는다. 산책로 가장자리에서 누리장나무 열매가 빨간 몸통이에서 내게로 튀어나올 듯 도발적이다. 사람들은 누리장나무를 보고 세 번 놀란다고 한다. 첫째는 꽃이 아름다워 놀라고, 둘째는 나무에서 풍기는 고약한 냄새에 놀라고, 끝으로 약재의 효능에 다시 놀란다고 한다. 가냘픈 흰 꽃이 지고 나타난 열매의 역동에 나는 네 번 놀라는 셈인가.

홀로 정상에 올랐다. 전망대에서는 안산 시내가 한눈에 보인다. 팔각정에 앉아 내가 사는 동네를 어렵해본다. 수도권 전철 4호선 너머의 바다 위에 세워진 도시가 신기루 같다. 지하철 지나가는 소리에 어린 시절 사촌오빠와 동네 뒷산에 올라

바라보던 기차길이 떠오른다. 어느 쪽이 하행선인지 상행선인지 앞뒤 없는 지렁이가 꿈틀대는 것만 같던 경부선 철도가 아련하다. 엄마한테 꾸중 들을 때면 오르곤 했던 뒷동산이 그립다. 후드득 새가 날고 인기척을 느끼며 하산을 한다.

돌아오는 길에 네 살 아이와 짧은 엄마를 만났다. 아이를 자연과 함께 키우고 싶어 신도시에서 중앙공원이 인접한 동네로 이사를 했다는 박선경 씨(36세, 고잔동)는 "남편과도 자주 중앙공원을 산책합니다. 도시에 낮은 산이 있어 참 좋아요. 나무가 크고 그늘도 많고, 우리는 여기 올 때마다 발리 우부를 이야기한답니다. 신혼여행에서 만났던 그곳 풍경과 너무도 닮아 있어요."라며 아이를 바라보았다.

선경 씨 가족과 시민들이 아름다웠던 한때를 추억할 수 있는 뒷동산에서 쉽고 위안을 얻으며 행복하기를 바라본다.

신선명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안산시의 도시숲은 안산시민에게 맑은 하늘과 청정한 공기를, 심리적 치유와 보다 나은 삶을 선물합니다.”

자연공존의 숲

시민들이 다양한 생명이 공존하는 자연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생명의 숲

녹색가로의 숲

맑은 하늘과 청정한 공기, 자연과 도심을 연결하는 가로녹지 숲

해안휴양의 숲

섬의 다양한 생물들이 가득한 갯벌 및 해안선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해안생태 숲

치유의 숲

시민의 스트레스저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위한 휴양의 숲

공동체의 숲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드는 커뮤니티 도시숲

글로벌 지식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IT 분야의 리더를 양성하다!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교장 정동윤, 단원구 사세충열로 94, 이하 '디미고')는 한 학년 총 4개 학과 6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과의 특색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디미고'는 자체 개발한 성적분석 프로그램을 통한 담임과 교과담당 교사들의 체계적인 성적 및 진로 상담 등을 하고 있는 성적분석프로그램 및 베네듀(IBT)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지도와 하고 있다. 생활지도교사에 의한 인성지도가 함께 이루어지는 전교생 기숙사 생활을 통한 최적의 교육 학습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강의 시청과 IT 과제, IBT 학습 및 연구활동 등에 활용되는 교내 무선랜 환경조성과 전교생 1인 1노트북 활용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을 운영하고 있으며 극장식 대강당, 종합체육관



등 전국 최고의 교육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e-비즈니스과

전자 상거래에 대한 실무적인 지식과 기술들을 습득하며, 21세기 차세대 경영인을 양성한다. 주요 전공 과목으로 Practical Business English, 상업경제, 회계원리, 회계정보처리시스템, 마케팅, 기업과 경영 등이다.

디지털콘텐츠과

방송에 필요한 장비에 대한 사용법과 영상 편집 방법, 포토샵, 일러스트, 3D MAX, MIDI 음악 등 콘텐츠 분야를 다룰 수 있는 미디어 전문가를 양성한다.

웹프로그래밍과

정보통신 서비스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각종 프로그래밍의 학습을 통해 첨단 프로그래머를 양성한다. 주요 전공 과목은 공업수학, 공업일반, 컴퓨터그래픽, 3D컴퓨터애니메이션, 프로그래밍, 웹프로그래밍 등이다.

해킹방어과

컴퓨터 운영에 관한 일반적 지식을 기본으로 암호시스템, 전자서명, 웹해킹 등 컴퓨터 보안에 관한 이론을 습득하고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해킹방어 전문가를 양성한다.

'디미고' 관계자는 "IT분야 쪽으로 진로 목표가 뚜렷한 학생들에게 적합한 학교이다. 더 좋은 것은 기본 교과 성적과 IT분야 쪽의 밸런스를 맞춰 공부한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했다.

또한 창업동아리 및 연구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2007년~2015 중소기업 지정 비즈쿨 선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정보올림피아드, 아시아·태평양 정보올림피아드 등 전국 최고의 IT 및 창업 분야 경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국가공무원, 대우조선해양, 한국전력, 삼성SDS 등 우수기관에 취업 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전국 2,300여 개 고교 중 100위권의 수능 성적과 서울 수도권 대학 70~80% 진학 실적을 가지고 있다.

'디미고'는 입학과 관련하여 카카오톡 1:1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상담가능 시간은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이다.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디미고 입학안내'를 검색해 친구추가 후 1:1 대화하기를 누르면 상담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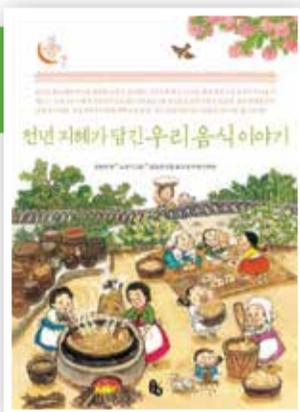
• 문의 :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 031-363-7800)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책 읽는 안산' 10월 2주 추천도서 (주제 : 음식으로 수다떨기)

아동



천년 지혜가 담긴 우리 음식 이야기

김용안 / 토토북

'토토 우리문화 학교' 시리즈 제7권 「천년 지혜가 담긴 우리 음식 이야기」, 이 시리즈는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데 꼭 알아야 할 주제 10가지를 다루고 있다.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단순히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도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우리 문화의 의미와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또한 이 책은 우리 조상들의 음식을 통해 우리 민족의 맛과 멋, 삶과 역사를 배울 수 있다.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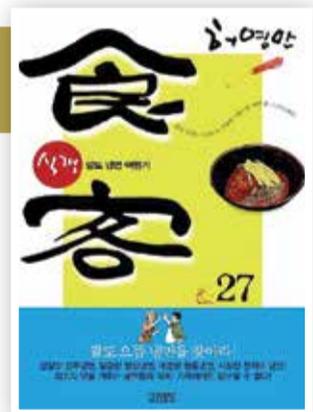


음식의 언어

댄 주래프스키 / 어크로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교양 강의'로 정평이 난 스탠퍼드대 대표 교양 강의 '음식의 언어'를 책으로 재구성한 「음식의 언어」는 바로 이 토마토케첩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저자는 전투 중인 한무제를 사로잡았던 강렬한 맛의 기록에서부터,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후 저장성을 높여 상품화시킨 오늘날의 토마토케첩까지 케첩이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수천 년 모험의 역사를 들려준다.

성인



식객

허영만 / 김영사

작품 기획에서부터 장장 11년! 진수 성찬의 식객 여행 300만 한국 독자들에게 세계 속 한국 음식의 자긍심을 선사한 대한민국 만화의 대명사, 11년간 대한민국 맛의 지도를 그려온 「식객」에 빠져보자. 한국 만화사에 보기 드문 전문 요리만화 「식객」은 철저한 취재를 통한 전문성과 인간미 넘치는 스토리, 진한 감동의 드라마로 완성된 27권 135개의 에피소드로 그 여정을 마무리했다.

• 자료제공 : 중앙도서관 (☎ 031-481-3868)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아니라 ‘미래가 원하는 우리’로 생각 바꿔야 ‘제26회 최용신 봉사상’ 수상자, 마이금 씨



“국권상실 시대에 농촌계몽에 나선 선각자 최용신의 이름으로 주는 상을 받으니 책임이 더 큼니다. 앞으로 힘 닿는 데까지 역할을 하겠습니다”

안산시는 지난 9월 24일 ‘제26회 최용신 봉사상’에 마이금 씨(61세)를 선정, 시상했다. 최용신봉사상은 최용신의 애국계몽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된 사회봉사상으로, 매년 가을 안산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각계의 추천을 받아 심사, 선정하고 있다.

마이금 씨는 20여 년간 협동조합과 시민단체, 민관협력기구 활동을 통해 친환경 먹거리 확산과 도시농업 발전에 기여했으며, 여성 권익 증진과 복지향상,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아 ‘최용신 여성상’을 수상했다.

부곡복지관 옆 푸른학습장에서 은발의 그녀를 만났다. 야생화를 쓰다듬으며 바늘꽃, 오갈피나무 열매, 으뜸명굴을 바라보는 눈길에는 생명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마이금 씨는 1996년부터 10년간 ‘안산시민의 생협(현 아이쿱안산생협)’ 이사장으로 건강한 친환경 먹거리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YMCA활동을 시작으로 안산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발족하고 현재의 아이쿱으로 발전하기까지 역사의 산증인이다.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고자하는 시민들의 출자를 통해 자본을 만들고, 조합원이 직접 운영하는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전환기마다의 고난들을 회상하며,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미소짓는다.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가를 살리고 소비자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더불어 농약과, GMO, 화학비

료 등의 위험성을 알리며 식생활과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여나가는 일은 녹록지 않은 일이었다.

“지금은 조합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주부들이 응집해 사회를 바꿔가는 한 축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국권상실 시대에 농촌계몽에 나선 선각자 최용신의 이름으로 주는 상을 받으니 책임이 더 큼니다. 앞으로 힘 닿는 데까지 역할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안산의제21’ 여성분과(현 성평등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여성을 위한 보육정책 발전에 기여했다. 2008년부터는 안산여성희망연대 공동대표로 정당의 여성 공천 확대를 위한 여론활동과 정당과의 간담회 개최,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등 여성정책 발전에 힘쓰고 있다.

2007년 통일포럼 대표를 시작으로 615안산본부 대표로도 활동하며 지역의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통일에 대한 시민의식 증진에도 역할을 했다.

현재는 안산도시농업연대의 공동대표로 단원농장 친환경 도시농업시범단지를 운영하고, 도시농부학교와 도시농업전문가 교육을 통해 도시농업인을 양성하고 도시농업 확산에 매진하고 있다.

마이금 씨는 “흙 만지는 느낌이 정말 좋아요. 도시인들이 옥상이나 주말농장 등 5평, 10평의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 1년 농사를 지으며 자연을 접하고, 생명을 일궈내며 정서를 키우는 경험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산품 이외의 모든 농작물의 부산물과 음식물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습도와 온도를 맞춰 발효시키면 퇴비가 됩니다. 쓰레기가 거름으로 순환하며 생명을 키워내는 것을 직접 체험하는 기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라며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아니라 ‘미래가 원하는 우리’로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신선영 명예기자(wogkahn@hanmail.net)

우리 지역의 동아리

사진을 통해 이야기를 만들다! 상록사진동호회

11월 전시를 앞두고 작품 인화작업을 하기 위해 상록사진동호회 회원들이 지난 10월 3일 출력소에 모였다.

상록사진동호회는 10여 년 전 사진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동호회를 만들게 되었다. 사진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진가들의 자발적인 모임에서 시작된 것이다. 초창기 10여 명의 회원이 활동을 시작했으며 지금은 총 15명이 함께 작업을 하고 있다.

상록사진동호회는 매월 셋째 주 일요일 정기 출사를 하고 있다. 출사할 장소를 정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을 만큼 모든 회원들이 열정적이며 단합이 잘 되고 있다. 출사 당일 오전에 사진을 찍고 오후에 품평회를 연다. 각자 한달 동안 작업한 내용을 가지고 품평회를 하는데 회원들은 품평 받을 작품을 미리 준비해온다. 늘 출사에 동행하며 지도를 하고 있는 백상현 사진가는 각자 수준에 맞는 맞춤형 품평을 해준다.

상록사진동호회는 단일하게 인화하지 않고 작가의 성향과 작품 성격에 따라 인화를 다르게 쓰고 있다. 이는 출력소를 운영하는 회원이 있어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이러한 면에서 상록사진동호회



는 아마추어이지만 여러 면에서 앞서가고 있으며, 믿음을 주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진을 찍고 직접 인화를 하며 개인의 작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실력을 갖춘 사진 동호회다.

상록사진동호회는 단적이 아닌 연작으로 표현하기 위해 예전부터 포트폴리오 작업을 해오고 있다고 한다.

백상현 사진가는 “동아리가 결성된 지 11년이 되었고 우리 회원들이 자랑스럽

다. 동아리 회원들의 작품 수준이 대한민국 동아리 중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프로 작가들도 상록사진동호회 전시를 보러 올 정도”라며 회원들의 실력을 높이 평가했다.

상록사진동호회는 오는 11월 1일부터 예술의전당 전시실에서 제10회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 주제는 ‘공간’으로 전시의 모든 과정을 회원들이 만들어간다. 각자 전시 공간을 정해주면 작가들이 스토

리에 맞춰 자유롭게 작품수와 크기, 배열 등을 스스로 정한다. 전시 때마다 시행하는 방법으로 한 장면 한 장면 단품 전시가 아닌, 사진을 보고 이야기를 구성해 볼 수 있는, 작가의 철학을 담은 전시를 하고 있다. 타 사진 동호에서도 이러한 부분이나 실력 등을 부러워하고 있다고 한다.

상록사진동호회 김상훈 회장은 “회원들이 잘 따라주어 좋다. 우리 동호회의 자랑으로 꼽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레벨에 맞게 지도해주는 지도가의 품평회다. 그렇게 때문에 사진을 배우고 싶은 초보자도 누구든지 배울 수 있다. 사진을 취미로 혼자 찍다가 동호회에 들어와 함께 작품을 만들고 사진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들이 좋다.”고 말했다.

- 전시기간 : 11월 1일 ~ 11월 8일
- 전시장소 : 안산예술의전당 전시실

이선희 명예기자(kiamyou70@hanmail.net)

브라보안산은 시민여러분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를 매호마다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참여하고 있는 동아리를 알리고 싶으신 분들은 ☎ 481-2042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산시의회 이모저모



안산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와동·선부中 학생 참여

청소년 민주적 시민 의식 함양 및 소통 확대 기회 마련

안산시의회가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7일 와동·선부중 학생들이 의회를 방문, 각각 모의의회와 견학을 실시했다. 와동중학교 학생들은 실제 의회 회의 운영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된 두 차례의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통해 의회가 하는 일과 의원 간 의견이 상충됐을 때 토론과 표결 절차를 거쳐 의사 결정을 내리는 과정 등을 배웠다.

한편, 의회는 모의의회와 견학, 방청 등의 프로그램으로 짜여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정확히 알리는 것은 물론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지원해 나가는 등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안산시의회 세월호 대책 특위,
단원高 학부모협의회와 면담 가져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12일 단원고등학교를 방문, 학부모협의회와 면담을 갖고 학교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위원들은 이날 저녁 단원고등학교 교장실에서 학부모협의회 소속 학부모 10여 명을 만나 특위 활동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학내에서 쟁점 사안으로 떠오른 희생 학생들이 사용하던 교실의 존치 문제에 대한 학부모들의 입장을 들었다.

학부모들은 교실 존치가 희생 학생들의 명예 졸업 때까지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하루 빨리 학교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들도 세월호 참사 피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현재 단원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그 학부모의 의견도 특위 활동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마을에서 더 격렬하게 놀자”

마을음악회, 10월 24일 평생학습관 야외마당에서 열려

가 운영된다. 매듭목걸이, 냅킨아트가방, 와이어 반지공예, 비타민로켓, 떡 만들기, 아이싱쿠키 등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체험거리들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특별히 이번 행사에선 동네 청소년들이 보드게임과 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 어린이들과 함께 신나게 노는 부스도 운영한다. 형, 누나들이 직접 딱지치기, 구슬치기 등 추억의 옛 놀이로 동생들과 놀아주고, 다양한 보드게임도 가르쳐준다.

마을음악회에 참여하는 공연팀은 총 11팀이다. 안산시립 합창단과 CUP댄스팀 같은 전문적인 공연팀도 함께하며, 시곡중학교 감나무 미니콘서트반과 방송댄스반도 무대를 빛낸다. 마을에서 갈고닦는 기량을 뽐낼 다양한 예술 동아리도 눈길을 끈다. 초등학교 5,6학년으로 구성된 핸드벨 합주단, 초등학교 3,4학년으로 이루어진 어린이중창단, 청소년들이 꾸미는 기타공연, 엄마들로 구성된 우크렐레 동아리팀도 함께한다. 이밖에도 마을랩퍼, 뮤지컬 갈라, 색스폰 연주 등 마을에서만 볼 수 있는 정답고 독창적인 공연을 볼 수 있다. 얼굴을 아는 많은 동네 주민들이 공연팀으로 참여하다보니 어느 때보다 더 화기애애한 축제가 예상된다.

또, 이날 먹거리 부스에선 추억의 음식과 코코아, 커피가 음료로 준비된다. 주의할 점은 일회용품은 따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행사에 올 때 그릇과 젓가락, 컵 등을 가져오면

좋다. 마지막으로 음악회가 끝나면 경품 추첨 행사가 마련돼 있어, 참가한 시민들과 다양한 상품을 나눌 예정이다.

사1동에서 4회째 주민들과 함께 마을음악회를 기획한 이영민 씨는 “올해 마을음악회 공예체험들이 새로운 것들이 많아, 부모님들도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이라고 귀땀했다. 이어 “올해 마을음악회는 마을에서 문화예술을 배우고 있는 많은 동아리들이 공연팀으로 참여해 더 큰 의미가 있다.”며, “이런 마을축제를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마을에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마을 안에서 서로 익히고 배운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선보이는 마을음악회가 오는 10월 24일 오후 1시, 평생학습관 야외마당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회는 사동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해 마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높이고, 주민들이 모이고 소통하는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감골주민회 회원들과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체험과 먹거리 부스들을 운영하고, 시곡중학교 동아리와 마을 문화예술 동아리, 지역 예술가들이 공연으로 함께한다.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다양한 체험과 놀이, 먹거리를 즐길 수 있고, 4시부터 6시까지는 어린이부터 성인들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공연을 볼 수 있다. 행사 사전공연으로 태릉관 합기도장 학생들의 화려한 무술 시범공연이 열린 후, 동네 엄마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공예체험부스

뉴스 미란다 원칙

브라보안산에 게재된 내용중
문의사항, 반론, 정정 요청사항이
있으신 분은 해당부서 및
안산시청 공보관실
(031-481-2042)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과 함께 나누는 삶의 고민, '청년아카데미'



부터 시작한 청년아카데미는 3회까지 강연형식으로 진행 해오다, 지난해에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한 '치유나눔장터' 행사를 열었다. 특별히 올해 청년아카데미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강연이 아닌, 청년들이 주인공이 되어 자기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된다.

청춘고민상담소 대나무숲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란 주제로 열린 1강은 청년들이 서로의 고민을 직접 이야기하는 자리로 꾸며져, 현재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또, 10월 23일에 열린 청소년공감토크는 84번의 근로계약서를 쓰게 했던 기업과 부당하고 소송을 해온 청년유니온 김영 씨와 청년지갑트레이닝 센터 이유란 씨가 함께해 청년 문제를 다른 청년들과 해결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자리로 꾸며진다. 10월 30일에는 치유공간 이웃의 이명수 대표와 함께 '같이 한다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진다.

11월 6일, 청년아카데미의 마지막 하이 라이트를 장식하게 될 '청년꿈시장'은 더 많은 청년들이 편하게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안산문화광장에서 진행된다. 이 행사는 공연과 강연, 청년플리마켓 및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져, 안산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로 꾸며질 계획이다. '청년꿈시장'에선 다양한 물건을 기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셀러'로도 참여할 수 있다. 단, 셀러의 나이는 20대에서 30대까지로 제한되고, 참가비 5천 원을 내면 테이블과 의자, 조명을 제공받는

다. 또, 물건을 기부하려면, 10월 31일까지 안산새사회연대일다 사무실로 접수하면 된다.

안산새사회연대일다의 청년분과장 김송미 씨는 "청춘꿈시장에서 30명의 셀러를 모집 중인데 벌써 모집인원이 거의 채워질 정도로 인기가 많아서 추가로 더 받게 될 거 같다."고 말한다. 이어 "행사를 신청하신 분들이 '이런 자리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청년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공간의 필요성을 새삼 느꼈다."며 "이후에도 안산지역 청년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고 싶다."는 소망을 전했다.

• 안산새사회연대일다 홈페이지 : <http://new1da330.com>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11월 6일 안산문화광장에서 '청춘꿈시장'도 열려

최근 삼포세대, N포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이 모여 삶과 세상의 고민을 나누는 2015 청년아카데미가 11월 6일까지 매주 금요일, 4주 과정으로 열린다. 특별히 마지막 과정에는 '청년꿈시장'이란 이름으로 플리마켓과 공연이 결합된 축제가 안산문화광장에서 오후 7시 30분부터 펼쳐질 예정이다.

새사회연대일다 '청년플러스'라는 소모임에서 2011년

우리의 꿈이 펼쳐지는 대단한 장이 열린다!

청춘꿈시장

2015.11.06.Fri p.m7:30~
꿈꾸는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꿈꾸는 나이가 되지 않으면?
안산문화광장
꿈을 꾸는 청년들, 청춘을 꿈꾸는 청년들

먹을거리, 입을거리, 놀거리, 공부거리 뭐든 다 된다.
안전히 어둠이되면 조명이 켜지고, 공연이 시작된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곳곳에 펼쳐진다.

아이들이, 밥 먹자!

구 상록구청, 청소년을 위한 '밥 먹는 카페'



15)에 청소년을 위한 밥 먹는 카페 '행복 나눔터'를 마련해 무료로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0월 12일, '밥 먹는 카페'의 저녁 메뉴는 흑미밥에 콩나물국, 불고기, 김치, 샐러드, 계란말이에 후식으로는 플레인 요구르트와 홍시가 준비되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곡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4명이 자전거를 타고 들어왔다. "축구를 하다가 배가 고파 왔어요.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서 친구들과 함께 밥 먹으러 왔어요."라고 말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아이들에게 배식을 해주면서 "많이 먹어", "먹고 싶은 반찬 있으면 더 갖다 먹어"라고 따뜻한 말을 건넸다.

카페에서 밥만 먹는 건 아니다. 한양대학교 재학생들이 멘토로 나서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보드 게임을 하거나 운동을 하기도 한다.

주방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옥(56세, 선부동) 자원봉사자는 "고2인 아들이 초등

학교 1학년 되던 해부터 봉사를 시작했어요. 많은 봉사를 했지만 내 자식 같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일 수 있다는 게 참 흐뭇하고 즐거워요. 많은 아이들이 와서 맛있게 먹고 갔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선부동에서 카페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 오려면 1시간여가 소요되지만 그 시간이 힘들다기보다는 아이들을 만날 생각에 기다려진다고 한다.

카페는 이경옥 씨 외에 3명의 자원봉사자가 교대로 식재료 구입부터 조리, 설거지까지 담당하고 있다. 식당 한편에는 청소년들이 먹고 싶은 메뉴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메모판이 마련되어 있다.

김건주 안산시자원봉사센터 기획홍보팀장은 "갈 곳이 없어 거리를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 밥이라도 먹게 하고 싶은 생각으로 카페를 개설했다. 현재는 평균 25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밥을 먹고 간다. 밥 먹으러 오는 아이들과 어느 정도 유대관계가 형성되면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직업 체험과 문화체험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카페는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9시까지 무료로 운영되며 청소년만 입장할 수 있다.

• 문의 : 안산시자원봉사센터 ☎ 031-411-1365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청소년을 위한 밥먹는 카페 '행복 나눔터'에서 배식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

먹을거리가 풍족한 세상이다. 그러나 인스턴트식품으로 한 끼를 때우는 것이 아닌 소박하지만 정갈한 밥상에 목마른 아이들도 있다.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지난 9월 7일 구 상록구청(상록구 차돌배기로 1길

Photo in Ansan

사진으로 보는 안산

수인선 협계 철로변 '구절초 꽃단지'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신안산대학교

사진 김진형 명예기자 <econojin@naver.com>



구절초 꽃단지

• **한줄 정보** 안산시 단원구는 2014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도심속 유휴지인 수인선협계 철로변(4호선 고잔역~초지역 구간 6,500㎡ 규모)에 구절초 꽃단지를 조성했다.



신안산대학교

• **위치** 단원구 신안산대학로 135 (초지동) • **한줄 정보** 1995년 개교, 현재 24개 학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1년 5월, 안산공과대학에서 신안산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안전한 사회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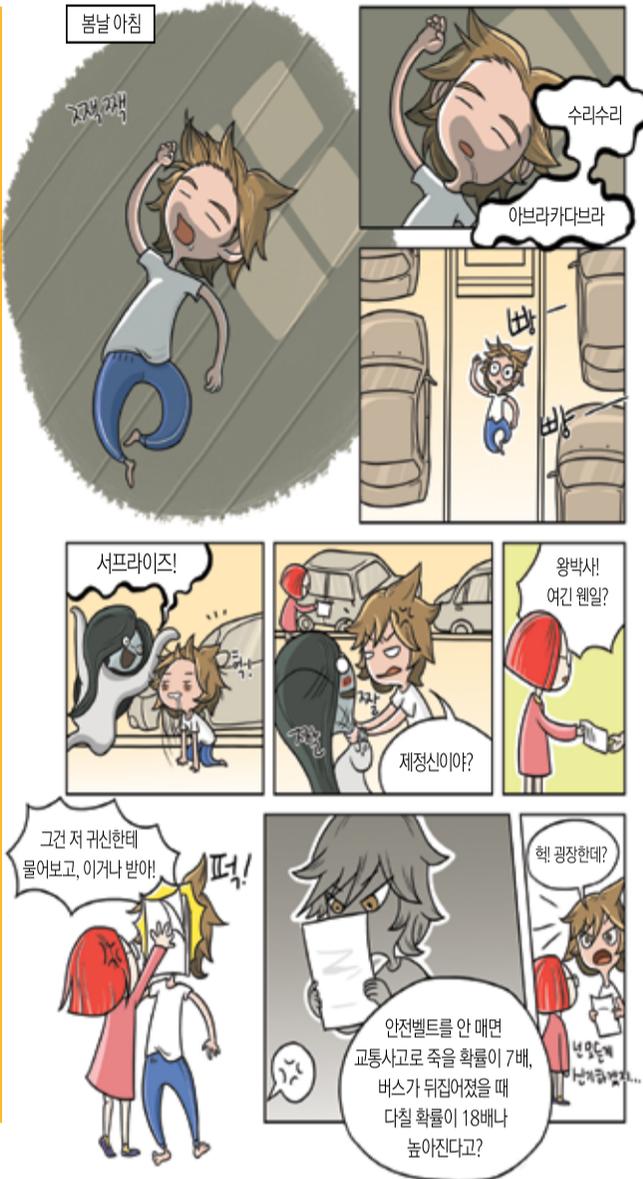
시민 스스로 안전을 생활화하며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재난사고를 예방, 사건사고를 경계할 수 있도록 안전관련 만화를 게재한다.

자료제공 :  국민안전처

관성의 법칙

뒷좌석 안전벨트와 카시트, 꼭 해야 할까?



봄날 아침

수리수리 아브라카다브라

서프라이즈!

왕박사! 여긴 웬일?

제정신이야?

그건 저 귀신한테 물어보고, 이거나 받아!

해, 굉장한데?

안전벨트를 안 매면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이 7배, 버스가 뒤집어졌을 때 다칠 확률이 18배나 높아진다고?



서둘러! 오늘은 건수 좀 올려야지!

어머내 안전벨트를 안 하시면 어떡해요?

카시트는 왜 꼭 안 조이셨어요? 유아 교통사고가 연평균 3,000건 발생한다고요.

이거 읽어보시고, 아기가 태어나면 카시트도 꼭 장착하세요!

아, 네...

어린이 카시트, 어떻게 설치할까?



- 어린이 카시트는 뒷좌석 가운데에 설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안전띠로 카시트를 팽팽하게 고정시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죠. 특히 등받이는 어린이의 머리 부분보다 높아야 하는데, 그래야 충격이 가해졌을 때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카시트의 등받이는 아이의 머리보다 높게
- 카시트의 어깨대는 어깨와 같거나 높은 지점에



안전벨트 어찌구쨌찌구...

여기 사고가 났어!

뭐? 사고?

대체 몇 중 추돌이야?

부상자는요?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아까 그 가족이야!

수고하셨습니다.

관찮으십니까?



왕박사님 말대로 안전벨트 매고 카시트 벨트도 조여놓았으니 명정이지.

차가 급정거를 하면서 앞차를 받았는데 몸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줄 알았어요.

바로 관성의 법칙 때문이죠!

왕박사의 한마디

아이들은 교통사고에 매우 취약해요.

관성의 법칙이란 물체가 자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을 말합니다. 차가 급정거를 하면 아이들은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거나, 목 부분 등이 차량과 충돌하면서 치명적인 상해를 입기 쉽습니다.

급정거 시

급출발 시

15명 구출

이히, 이게 얼마 만이냐~

다시 투게이트로 가져고! 안내문을 더 돌려야겠어.

배고파 죽겠다. 밥 좀 먹고 하자.



어? 너 강백수 맞지?

오~ 너 공무원 된 거야?

누구?

아... 뭐, 그냥...

안전벨트에 대한 거야. 꼭 읽어봐.

수고해라.

공무원 강백수! 밥 먹으러 가자!

편, 나보다 짜질했던 녀석아...

근데 오늘 사고 날 줄 어떻게 안 거야?

머칠때 공쳤잖아. 그래서 열라대왕에게 떼 좀 썼지.

임튼 오늘 백수, 멧졌어!

흐흐... 정말 쓸 만한 인재야.

응! 나?

4th
투명사회
아카데미

투명사회를 위한 근본적 대안을 모색하다

기간 2015년 11월 12일~12월 3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9시
장소 상록구청 4층 대회의실

참가비

2만원 (농협 : 197-01-322366 / 안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 전화 : 031-481-2652 • 이메일 : aspect0518@daum.net
 • 인터넷 : (https://goo.gl/W8nHQP) 접속, 작성후 보내기

주최

안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내용

구분	주제	날짜	강사
01	모두에게 기본 소득을 (매달 통장에 30만원이 들어온다면)	11.12(목)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02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돌봄과 배려의 공동체)	11.19(목)	조한혜정 문화인류학자 연세대 명예교수
03	의로운 도전, 공익제보 (변호인 그리고 미생)	11.26(목)	이지문 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 소장
04	모멸받지 않는 사회 (존중받는 나, 너를 위하여)	12.3(목)	김찬호 성공회대 교양학부 초빙교수

*개별신청도 가능합니다.



안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The Council for the Ansan Pact on Anti-Corruption and Transparency

엄마랑 함께랑랑

서철호 엄마 아버지와 함께
따뜻한 사랑을 그리는 축제

2015. 10. 31(토) - 11. 1(일)
양일간 12시 - 17시
화랑유원지 대공연장 일대

주요내용

엄마의이야기공연 ★ 세월호 엄마와 함께 공예품을 만들어요~
 할머니부엌 ★ 정성이 담긴 수제 떡거리도 있어요~
 할머니농장 ★ 예술가와 함께 수공예품을 만드세요~
 할머니농장 ★ 벼룩시장에서 아트를 만나요~
 함께손잡 ★ 작가들이 손수 만든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해요~
 함께농장 ★ 놀이활동가와 함께 온 가족이 즐겁게 놀아봐요~
 함께농장 ★ 음악가들의 노래와 공연을 즐기세요~

주최 416가족협의회 / 엄마의이야기공연
 후원 안산문화재단
 문의 031) 413-1541 안산문화재단

노인취업상담 및 무료 취업알선

(사)대한노인회 안산시 단원구지회 노인취업센터에서는 취업을 희망하는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감을 사업체로부터 의뢰받아 무료로 취업알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할 능력을 가정에 묻어두지 마시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맡겨진 능력을 발휘하여 주십시오. 만60세 이상의 취업희망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신청접수 : 수시
- 신청대상 : 만60세 이상 (남여 구분 없음)
- 주요직종 : 주차관리 / 가사돌보미 / 미화원 / 경비원 / 생산직 등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방문시 신분증 지참)
- 접수장소 : 대한노인회 안산단원구지회 (선부동 단원구노인복지관내 2층)
- 문의전화 : 031-403-8787

티브로드 한빛방송과 함께하는 가요사랑 콘서트

일시 2015. 10. 23(금) 18:30
장소 고잔동 별빛광장 옆 축구장


정수라


박상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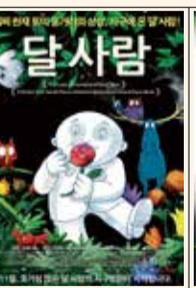

진시문


우연이

출연/가수 정수라, 박상철, 진시문, 문현주, 민지, 소명, 우연이, 류기진, 박우철, 최진아, 강소리 등
 진행자_윤경화 후원_안산시, 안산문화재단, 안산시 아파트 대표회장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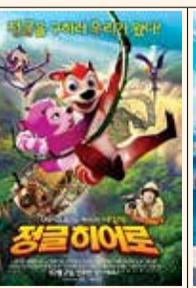
상록/단원어린이도서관 11월 주말 영화상영

“가족과 함께 영화 관람으로 즐겁고 유익한 주말 오후시간 보내세요”
< 상록어린이도서관 주말영화상영 프로그램 >

			
11월 7일(토)	11월 14일(토)	11월 21일(토)	11월 28일(토)

안산시 감골도서관(상록어린이도서관)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상록어린이도서관 지하 어울림방에서 어린이들 및 이용객을 대상으로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감골도서관 홈페이지(http://lib.iansan.net) 문화행사 및 공지사항을 통하여 연중 매달 주말 영화상영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록어린이도서관(☎481-37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영화 관람으로 즐겁고 유익한 주말 오후시간 보내세요”
< 단원어린이도서관 주말영화상영 프로그램 >

			
11월 7일(토)	11월 14일(토)	11월 21일(토)	11월 28일(토)

안산시 관산도서관(단원어린이도서관)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단원어린이도서관 지하 강당에서 어린이들 및 이용객을 대상으로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관산도서관 홈페이지(http://lib.iansan.net) 문화행사 및 공지사항을 통하여 연중 매달 주말 영화상영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단원어린이도서관(☎481-38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지 설문조사
이벤트 당첨자 안내

시정소식지 설문조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정되신 10분께 1만원권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단원구: 조은실, 이성민, 이지현, 홍혜영, 박형자 / 상록구: 박미옥, 김재윤, 방지원, 김영실, 정민자

시정소식지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시정소식에 바라는 점 또는 독자평을 남겨주세요. 주소변경시 꼭 전화주세요.
 (전화 ☎ 031-481-2042, 팩스 031-481-3224, E-mail : bravo@iansan.net)